

나는 담배를 피우는 일을 나쁘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형제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무언가 말할 수 없을 때 혹은 기쁠때, 담배는 그럴때 다른 말로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담배는 중요한 친구인 셈이다.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궤변가의 말이다」 라고 말할수 있을찌도 모릅니다. 「이것도 맞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도 없는 사람이 「싫다」 라고 말할리는 없으까요.

「담배의 연기는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 입니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담배는 나쁜것은 부정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어느쪽도 양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장소 중에서 특히 병원이든가 아이가 많이 있는 장소는 담배를 피우는 일을 삼가해주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좀더 이해해 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말하지만 담배를 피울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자유를 느끼는 일을 방해 받으면 안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한다면 규칙을 만들어 담배를 피우는 일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상대를 이해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